**데이비드 터너 박사, 매튜   
강의 – 1B – 매튜 II 소개: 주요 주제**

안녕하세요. 1B 강의, 마태복음 2장 소개, 마태복음의 주요 주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데이비드 터너입니다. 지난 강의를 잘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지난 강의는 듣기 쉽지 않았고, 세부적인 내용이 많아서 다소 지루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들으시길 권합니다 . 분명 효과가 있을 겁니다. 1B 강의가 조금 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정확한 지식에 대한 거의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넘어,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관찰하는 주요 주제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복음서의 주요 주제를 25분 남짓한 짧은 강의에서 선정하고 요약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강의를 계속 들으시는 동안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중요한 한 가지는 예수님과 구약성경의 관계입니다. 마태복음이 구약성경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해석가들이 이 복음서의 유대적 성격을 지적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호텍스트성의 만연함은 마태의 신학에서 소위 구약성서라는 개념 자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면(517), 마태가 유대 경전을 오래된 것으로, 적어도 그 함축적 의미에서 고풍스럽고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고풍스럽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마태는 히브리 성서의 역사적 패턴 과 예언적 신탁이 모두 예수의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 궁극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비공식적인 암시 외에도, 약 50개의 공식적인 인용문이 있습니다. 암시와 인용의 차이를 논할 때, 1장과 2장의 차이점을 잠시 생각해 보세요. 1장부터 17절까지의 족보에는 히브리어 성경의 어떤 구절도 직접 인용되지 않았지만, 전체가 히브리어 성경, 즉 구약 성경에 대한 암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암시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공식적인 인용문은 더 쉽고, 이 복음서에는 약 50개의 인용문이 있습니다. 추가 자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의 강의 개요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제 6페이지와 7페이지를 살펴보세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구약 성경의 구체적인 인용문이나 인용구를 요약해 놓았습니다.

왼쪽 열에서 괄호 안에 M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많은 경우 J로 표기되고, 다른 경우에는 J로 표기됩니다. 가운데 열에서 별표, 즉 숫자 기호가 있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 기호들은 7페이지 하단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기호들은 이야기 속에서 누가 구약성경을 언급하고 어떻게 인용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50개의 공식 인용문은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두에 나오는 표현, 즉 "성취되기 위해"라는 문구나 "기록되었다"라는 문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자에 따라, 즉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인지, 마태가 편집자로서 덧붙인 내용인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주석 수업에서는 마태가 구약성경을 인용한 각 부분을 개별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노트 6~7쪽에 이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살펴보실 때 참고하실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 자, 마태복음의 독특한 구약 사용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태복음의 그리스도론 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물론 마태의 그리스도론은 구약에 대한 그의 이해에 의존합니다. 사실, 그의 그리스도론은 구약에서 비롯되었는데, 구약이라고 불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히브리어 성경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태는 예수님 을 통해 구약을, 그리고 구약 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형성합니다 . 마태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인격, 사역, 그리고 가르침이 이스라엘 성경의 역사, 윤리, 그리고 예언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구약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마태복음에서 발견되는 순서대로 예수님에 대한 주요 칭호 또는 묘사입니다.

이에 대한 추가 연구로는 1989년에 출판된 프랑스의 저서 『구약성서 속의 예수』(Jesus in the Old Testament)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를 묘사하는 첫 번째 칭호는 바로 그가 메시아, 즉 영어로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마태복음의 첫 구절, 족보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기원후 118년 그의 탄생 상황을 묘사하는 부분에서부터 메시아로 불립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언급하는 이 일련의 구절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역사와 희망과 강력하게 연결시킵니다. 이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는 열쇠입니다. 메시아는 문자 그대로 특별한 봉사나 직분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서 사무엘상 9장 15절, 10장 1절, 16장 3절, 16장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8장 41절, 역대상 29장 22절, 이사야 45장 1절, 그리고 다른 여러 구절들도 참고하십시오. 마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용어가 사무엘상 24장 6절, 사무엘하 1장 14절, 시편 2장 2절과 같은 구약 본문에서 왕의 칭호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천하고 고난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라는 기독교적 개념은 예수 시대 유대교에서는 분명히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의심을 품었습니다(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베드로는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확증할 수 있었습니다. 1620년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이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점점 커지는 반대를 미리 막기 위한 것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강조하는 또 다른 사례는 마태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수난 주간에 대한 묘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와 유대 지도자들의 충돌은 예수의 다윗-메시아적 연결을 강조하는 에피소드로 절정에 달한다(22장 41절). 예수는 자신의 영성에 대한 견해와 유대 지도자들의 견해를 대조하면서, 2310년에 메시아 외에는 아무도 '주님'이라고 불릴 수 없다고 단언한다. 예수는 제자들이 자신의 재림의 징조에 관해 질문했을 때, 가짜 메시아를 믿지 말라고 경고한다(24장 23-26절).

유대 공의회에서 예수께서 대제사장에게 자신이 메시아인지 묻는 질문에 긍정으로 대답하신 내용은 다니엘 7장 13절과 유사합니다. 이는 266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니엘 7장 13절을 인용한 것은 2668절에서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나중에 빌라도는 27장 17절과 22절에서 바라바를 풀어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예수가 일부 사람들에 의해 메시아라고 불렸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 메시아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부활하여 모든 권세를 받습니다. 2819년, 이는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을 암시하는 것으로, 2664년에서 예수께서 그 본문의 언어를 사용하신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렇게 높여진 메시아가 제자들을 파견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독특하게 이해하는 핵심은 아마도 1616년과 2664년 두 핵심 구절에서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을 연결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혹은 조금 더 아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 아래에서 논의될 것입니다. 그다음은 다윗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입니다.

이 칭호는 다른 복음서보다 마태복음에서 더 자주 등장합니다. 마태는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밝힌 직후, 바로 다윗의 아들로 밝히고, 유아기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다윗 혈통을 재빨리 확립하고 강조합니다. 1장 6절, 17절, 20절을 살펴보십시오.

그 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예수님께 병 고침을 구하는 모든 사람의 입에서 다시 사용되었습니다(9:27, 15:22, 20:30, 31). 또 다른 경우에는 병 고침을 통해 군중이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 , 곧 메시아가 아닐까 의심하기도 했습니다(12:23). 여기서는 한 용어가 다른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본문들은 예수의 다윗 혈통을 치유와 연결하며, 예수가 왕권을 궁핍한 자들을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돕기 위해 사용했음을 보여줍니다. 21:9에서 예수의 승리의 입성에서, 군중은 다윗의 아들 예수를 위해 하나님께 찬양을 외치며 시편 118편 25, 26절의 언어를 반복합니다. 그날 늦게, 예수가 이 찬양을 받아들인 것이 유대 지도자들의 분노의 계기가 됩니다(21:15). 수난주간에 예수와 유대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자, 예수와 그 지도자들 사이의 마지막 논쟁은 다윗의 아들인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한 관점에서 설명됩니다(22:41-45). 여기서 예수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여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주님이심을 확증하며, 다윗의 아들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마태가 다윗의 아들이라는 모티프를 사용한 것은 예수님께서 치유와 통치를 위한 메시아적 자격을 가지고 계심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강조는 사무엘하 7장 14절 이하, 시편 2편, 89편, 이사야 9장 6절과 7절, 11장 1절 이하,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과 같은 구약 본문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계승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에 가져오십니다. 세 번째 기독론적 칭호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예수의 칭호는 1장 1절에서 그가 메시아, 다윗의 아들로 확인된 직후에 나옵니다. 그 자체로는 이 칭호 자체가 메시아적 의미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족보는 1장 2절과 17절에서 예수의 아브라함 혈통을 강조하는데, 이는 단순히 예수의 유대인적 뿌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분으로 묘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의 세례에 와서 아브라함의 혈통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3:9). 요한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회개가 다가올 심판을 피하는 데 필요했습니다(3:8-10). 이 주제는 8장 10-12절에서 로마 장교의 놀라운 믿음에 대한 예수의 반응으로 더욱 강화됩니다. 요한에게 찾아온 지도자들과 같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 관리와 같은 이방인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위대한 종말론적 연회에 참여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문제는 민족성이 아니라 윤리입니다. 마태가 유대인 전체를 하나님의 종말론적 축복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예수님을 믿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마태가 아브라함을 언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외아들 이삭이 거의 희생될 뻔했던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현세에서 완전히 성취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을 22장 32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네 번째 칭호는 임마누엘입니다 .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의 중요성은 이사야 1장 23절에 인용된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 더욱 분명해집니다 .

이사야 8장 8절과 10절도 비교해 보십시오. 이 중요한 구절은 동정녀 탄생,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의 동정녀 잉태에 대한 기독교 신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마태복음은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하시겠다는 예수의 약속을 마무리하며, 1장 23절과 문학적 포괄성( inclusio)을 형성합니다. 1장 23절에서는 예수라는 인격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이야기의 시작과 끝 모두에서 강조되며, 책 전체를 위한 일종의 책받침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18장 20절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교회 규율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제자들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다섯 번째 칭호는 바로 왕이시다.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박사들이 이스라엘의 갓 태어난 왕을 찾아 도착하는 장면은 하나님의 참된 통치자와 악한 왕을 사칭하는 헤롯 사이의 갈등을 예고합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생애 말년에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신 것을 왕의 행위로 이해하는데, 이사야 62장 11절을 인용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장래의 심판을 예언하실 때, 그분은 즉위하신 인자(25장 31절)로, 복 있는 자와 저주받은 자를 구별하는 왕(25:34, 40, 41)으로 묘사됩니다. 빌라도 앞에서 심문을 받으실 때, 예수께서는 빌라도의 질문을 자신의 왕권에 대한 진실된 진술로 받아들이셨습니다(27:11).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군인들이 그 칭호를 조롱하는 것을 참으셨고(27:29),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의 머리 위에 놓인 명판에 그 칭호를 분명히 비꼬는 어조로 언급한 것도 참으셨습니다(27:37). 심지어 유대인 지도자들조차 예수님의 왕권을 조롱했습니다(27:42). 그러나 부활하신 후, 그분은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사도들을 그들의 높임받은 왕으로 세상에 파견하셨습니다(28:18). 다니엘 7:13과 14의 26:64를 비교해 보세요.

예수를 가리키는 여섯 번째 용어이자, 아마도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를 가리키는 가장 뛰어난 칭호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잭 킹스버리가 있습니다. 시편 27편과 89:27과 같은 구약 성경 본문을 배경으로 마태는 예수를 동정녀에게서 잉태된 아들로 제시하며,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독특하게 상징합니다(1:23). 이사야 7:14와 비교해 보세요. 예수의 이집트 체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합니다(2:15). 호세아 11:1 참조. 예수는 세례를 받을 때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받고, 사역을 위한 영을 부여받습니다(3:17). 이사야 42:1과 비교해 보세요. 그러나 곧 사탄은 예수가 영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사탄에게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물었을 때 이러한 인정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의지하여 사탄을 물리치실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광야 방랑을 승리로 재현하셨습니다(4:3, 5). 예수님은 화려한 행위로 자신의 독특한 아들됨을 나타내려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신성한 아들됨이 아버지의 뜻에 복종함으로써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한 아들됨은 마태복음 8:29과 14:33에서도 악령과 날씨를 다스리는 권세를 통해 드러납니다. 이 권세는 오직 아버지 와 아들께만 공유되며, 아들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알게 하는 유일한 대리자이십니다(11:27) . 이는 예수님의 사도들, 즉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한 16:16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의 이러한 연결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베드로는 아버지께 복종하는 신성한 아들됨에 대해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16:22, 23).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의 변형은 제자들에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그의 말씀만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와 유대 지도자들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마태는 비유적 이미지를 통해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을 거부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21:33 이하, 22:2 이하). 논쟁이 끝난 후, 예수는 시편 110편 1절을 언급하며 그들의 분노를 샀습니다(22:45).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가야바는 예수에게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의 증언을 되풀이한 것입니다(26:63). 16:16과 비교해 보세요. 가야바에게 한 예수의 대답은 다니엘 7:13절의 인자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불길하게 인용합니다. 이 아이러니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에서도 계속되는데, 범죄자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조롱과 로마 군인들의 고백이 대조를 이룹니다.

조롱하는 자들과 고백하는 자들 모두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신 것을 언급합니다(마태복음 27:40, 43, 54).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또 다른 칭호는 '주님'입니다 . 마태가 예수님을 지칭하는 이 칭호는 그리스-로마 시대의 이 칭호 사용 배경과 대조됩니다. 당시 그리스-로마 시대에는 인간보다 우월한 사람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것부터, 오늘날의 '선생님'과 같은 칭호에서 신으로 여겨졌던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칭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칭호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용어는 구약성경의 그리스어 번역본인 칠십인역에서 약 6,000회 등장하는데, 히브리어 요드-헤-바브-헤-야베(Yohveh)의 번역으로, 때로는 여호와(Jehovah)로 발음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는 신성한 테트라그라마톤(Tetragrammaton) , 즉 발음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단어를 읽을 때, 그들은 단순히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Adonai) 또는 발음해서는 안 될 이름인 하셈(Hashem)이라고 말합니다.

'(kurios) 이라는 용어를 예수님께 적용하는 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 마태복음 3장 3절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여 원래 아도나이(Yod-Heh-Vav-Heh)를 지칭했던 구절을 예수님께 적용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 그리고 25장 37절과 44절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은 종말론적 심판자로서 주님으로 불립니다.

치유받도록 설계된 사람들은 종종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그런 구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제자들도 예수님을 자주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부분도 성구 사전에서 확인해 보세요.

때때로 예수님은 자신을 주님이라고 부르십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신 자신을 귀신의 왕이라고 부르면 그의 종들인 그들에게 더 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실 때처럼 말입니다. 10장 24절과 25절. 예수님은 12장 8절에서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부르심으로써 안식일 율법에 대한 권위를 나타내십니다. 21장 3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승리의 입성을 위해 나귀와 새끼 나귀를 데려오라고 보내시며,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전하라고 지시하실 때 자신을 주님이라고 칭하십니다. 24장 42절에서는 자신의 재림을 주님의 재림으로 묘사합니다.

이 용어의 모호성 때문에 우리는 각각의 용법을 문맥 속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맥락적 의미를 담고 있지만, 때로는 단순히 예수님을 존중하는 호칭일 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또 다른 용어는 '선생님'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용어는 거의 항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 세리들, 헤롯 지지자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됩니다. 8장 19절, 9장 11절, 12장 38절, 17장 24절, 19장 16절, 22장 16절 등 여러 구절에서 이 용어가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세 번이나 자신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셨는데, 10장 24절, 25절, 23장 8절, 26장 18절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에서 이 용어의 사용에 반드시 음흉한 의미가 담겨 있지는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태에게 예수님은 단순한 스승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표현을 좀 바꿔 말하자면, 예수님을 미미한 칭찬으로 정죄하는 맥락에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매우 중요한 용어는 '인자'입니다.

복음서들은 예수님을 지칭할 때 이 표현을 다른 어떤 표현보다도 많이 사용하며, 요한복음 12장 34절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표현이 발견됩니다. 이 표현은 구약성경에서 100회 이상, 에스겔서에서만 90회 이상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경외로우신 하나님과 대조되는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성을 묘사하는 데 가장 자주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민수기 23장 19절과 시편 8장 4절처럼 '사람'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적 평행구절로 자주 등장합니다. 에스겔서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다니엘 8장 17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마태는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30회 사용했지만, 세 가지 주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겸손을 강조하는 구절에 등장합니다.

그는 인자이므로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8:20). 그는 술 취한 자요 탐식가라 불립니다(11:19). 그는 사흘 밤낮으로 땅속에 있을 것입니다(12:40). 그가 세상에 있는 동안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선지자로 생각합니다(16:13:14). 그의 영광스러운 변형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부활 이후에야 알려질 것입니다(17:9). 그는 세례자 요한이 겪었던 것처럼 학대를 받고 고난을 받을 것이며(17:12), 가까운 동료에게 배신당할 정도까지 될 것입니다(17:22, 20:18, 26:2, 26:24, 45). 이러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20:28). 이 용어에 대한 구약 성경의 배경은 인류 전반과 특히 선지자를 묘사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하는 많은 구절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인자라는 용어는 예수님의 현존하는 권세와 권위를 강조하는 구절들에 등장합니다. 즉, 그분은 이 땅에서 중풍병자들의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9장 6절에서 그 권세를 증명 하기 위해 그들을 고치십니다 . 인자로서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이시지만(12:8), 그분의 권세는 너무나 논쟁적이어서 원수들에게 비방을 당하십니다(12:32). 그분의 사역은 권위 있는 왕국 메시지의 씨앗을 심습니다(13:37). 셋째, 이 용어는 영광스럽게 오실 왕으로서 예수님을 강조하는 구절들에 등장합니다.

그는 죄인들을 그의 왕국에서 쫓아내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실 것입니다(13:41). 그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16:27:28, 24:27, 30:37:39, 25:31, 26:64). 그의 영광스러운 왕국이 임할 때, 그의 추종자들도 풍성한 상을 받을 것입니다(19:28). 그러나 그들은 먼저 그의 예상치 못한 재림에 대해 끊임없이 경계해야 합니다(24:44). 예수님의 현존하는 권세와 영광스러운 재림을 강조하기 위해 이 용어가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사용된 배경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다니엘 7:13이며, 예수님께서는 26:64에서 이 구절을 언급하셨습니다. 다니엘 7:13의 문맥은 심판 장면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 태고적 존재로 묘사된 하나님께서 땅의 통치권을 인자의 아들에게 넘겨주시고, 인자는 그의 백성과 함께 원수들을 이기고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다니엘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대명령 언어에는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 행사하신 권위와 재림하실 때 행사하실 영광스러운 권위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의 미묘한 차이가 마태복음의 천국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마태복음에 대한 다른 칭호들이 있지만, 일단은 제쳐두고 마태가 사용한 독특한 용어인 천국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마태는 12장 28절, 19장 24절, 21장 31절, 그리고 43 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간헐적 으로 언급하지만, 그의 독특한 용어인 천국은 32회 등장합니다. 일부 해석가들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라는 표현을 구분하려 하지만 , 적어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사용할 때 종종 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마가복음, 실례합니다만, 마태복음 13장 31절과 마가복음 4장 30절, 마태복음 19장 14절과 마가복음 10장 15절,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7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둘째, 마태의 용어 사용은 하나님의 영역인 천국을 하나님 자신과 연관 짓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이러한 연관성이 두드러지는 것은 아마도 이러한 배경일 것입니다.

다니엘 2:18과 19:28, 37, 44, 다니엘 4:34, 35, 37, 다니엘 5:23, 다니엘 12:17을 살펴보세요. 이것은 환유라고 불리는 언어적 표현이며, 마태복음의 기독교 유대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8절과 21절에서처럼요. 일반적으로 천국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움 또는 임재를 가리킵니다(3:2, 4:17, 10:7, 그리고 다른 많은 구절들). 그러나 6:10, 13:38-43, 25:34, 26:29와 같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미래 통치를 적용하거나 명확하게 묘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하는 방법은 아마도 예수님의 초림 때 시작되었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 요한, 그리고 사도들의 설교가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묘사합니다(마 3 :2, 4:17, 10:7). 현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팔복(마 5:3, 5:10)의 틀을 형성하는데, 팔복은 그렇지 않으면 미래의 하나님 나라 축복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른 많은 언급들이 있으며, 만약 당신이 성구 사전을 구한다면 그러한 종류의 연구를 통해 보답을 얻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다음 핵심 주제는 갈등인데, 시간 부족으로 자세히 다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장에서 예수님이 갓난아기였을 때, 헤롯이 예수님을 잡으려 한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는 동안, 그와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는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이며, 23장의 끔찍한 비난으로 절정에 달합니다.

마태가 예수와 유대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을 강조한 것이 반유대주의를 함축하고 조장하는 것일까요? 기독교 반유대주의자들이 마태를 이용해 반유대주의적 의제를 조장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마태의 의도는 분명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이었고, 예수를 유대인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독교 유대인들은 비기독교 유대인들과 격렬한 종교적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제2성전 유대교 시대에는 종파 갈등이 흔했습니다.

마태의 의도는 분명 유대 사회의 비기독교적 유대교를 반박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마태가 서기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기록되었든 이후에 기록되었든 말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유대인들 간의 종교적 분쟁이지, 유대 민족에 대한 이방인들의 논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태가 반유대주의자들에 의해 오용되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해야 하지만, 마태를 유대인에 대한 이방인 기독교 논쟁으로 해석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테이프를 마무리하며, 교회와 이방인 세계 선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복음서 중 가장 유대적인 복음서로 흔히 묘사되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지칭하는 데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한 유일한 복음서입니다. 마태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예상치 못한 사람들, 즉 1장의 다말, 라합, 룻, 밧세바, 2장의 동방박사, 8장의 로마 관리, 15장의 가나안 여인, 27장의 로마 군인 등에서 형성되었음을 분명히 밝히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에피소드들은 마태복음의 원래 유대인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그들이 동족 유대인들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신 것은 그분의 높아진 지위에 기반합니다.

모든 권능을 받으신 예수님은 열한 제자를 모든 민족에게 보내어 당신의 계명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들과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무장시키십니다 . 이 사명의 우주적인 범위는 벅차 보이지만, 제자들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승리하신 인자처럼 그들의 메시아께서 우주적인 권능을 받으셨음을 기억한다면 이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미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고된 사명을 완수할 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들과 항상 함께하실 것입니다.